

농어촌공사 공주시사, '2025년 상반기 수질환경보전회'...농업용수 수질개선 협력 강화

입력: 2025.05.27 16:23 / 수정: 2025.05.27 16:23

참여 주체별 역할분담 및 수질개선 활동 협력 도모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가 지난 22일 청사에서 '2025년 상반기 수질환경보전회'를 열고 있다. /공주시사

[더팩트 | 공주=김형중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가 최근 공주지역의 농업용수 수질 개선을 위한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2025년 상반기 수질환경보전회'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거버넌스 강화를 통해 상류 유역 오염원 사전 차단 및 수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공주시, 환경단체,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석해 각 주체 역할을 분담하고 수질 관리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공주시사는 관내 저수지 수질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녹조 예찰 활동 및 수질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염물질 유출 및 녹조 사고 대응 훈련도 실시하여 수질오염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다.

또한 공주시 시니어클럽과 연계하여 저수지 환경정화 및 낚시금지 계도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주민들과 협력하여 깨끗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박재근 공주시사장은 "지속 가능한 농업과 깨끗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수질관리 활동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지역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주민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농촌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공주지사, 수질환경보전회서 수질개선 머리 맞대

✎ 이견용 기자 | ⓒ 승인 2025.05.28 13:15

참여 주체별 역할 분담 및 수질개선 활동 협력 도모키로



▲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가 최근 수질환경보전회를 열고 수질 개선을 통한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농어촌공사공주지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는 최근 농업용수 수질 개선을 위한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2025년 상반기 수질환경보전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역 거버넌스 강화를 통해 상류 유역 오염원 사전 차단 및 수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돼 공주시, 환경단체,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석해 각 주체별 역할을 분담하고 수질 관리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공주지사는 관내 저수지의 수질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녹조 예찰 활동 및 수질조사를 실시 중으로, 오염물질 유출 및 녹조 사고 대응 훈련도 실시해 수질오염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또 공주시니어클럽과 연계해 저수지 환경정화 및 낚시 금지 계도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주민들과의 협력을 통해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박재근 공주지사장은 “지속 가능한 농업과 깨끗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수질관리 활동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주민과의 협력을 확대해 깨끗하고 안전한 농촌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주지사는 의당면 중흥저수지에서 자연재난에 대비한 ‘2025 재해대비 저수지 비상대처훈련’을 실시했다.

중흥저수지는 1999년 준공된 농업용 저수지로, 총 저수량 277만 7000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당면 일대 386ha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중요 수리시설이다.

이번 훈련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빈발하는 집중호우와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저수지 제방 일부가 붕괴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단계별 상황을 부여한 후 대응 조치를 취하고 응급 복구에 중장비를 동원하는 등 실전 훈련처럼 진행했다.

공주지사는 이번 훈련을 통해 위기발생 시 대처 방법과 개인 분담역할을 숙지하고 재해 상황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전 직원의 재난 대응 능력을 키우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재근 지사장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훈련과 점검을 통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이견용 기자 lgy@ggilbo.com



이견용 기자 lgy@ggilbo.com